“아빠는 몸으로 놀아 주는 게 제일 재밌대요”

가치육아 공동 육아 (1)

한라일보 ‘가치 육아’가 ‘공동 육아’ 코너를 새롭게 선보입니다. 기존 연재하던 ‘가치 육아 - 이럴 땐’이 영유아 양육 상담소라면, ‘공동 육아’는 제주 엄마 아빠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 첫 번째로 놀이를 통해 아이들과 더 가까워진 아빠들의 경험을 담았습니다.

사진 왼쪽부터 아빠 현규환 씨와 삼남매가 크리스마스 파티 미션을 수행하고 찍은 기념 사진, 딸과 운동댄스를 함께하고 있는 강태윤 씨.

다양한 놀이로 아이와 더 가까워진 아빠들
‘100인의 아빠단’ 등으로 온 가족 추억 쌓기
“아이들에게 요구되는 아빠만의 역할 분명”

▶아빠의 도전… ‘제주 100인의 아빠단’=“야근을 많이 할 땐 아이들 자는 모습만 볼 수 있었어요. 제 시간에 퇴근하려고 아침 일찍 출근해도 저녁이면 일이 밀려서 늦게 집에 들어가곤 했죠.” 올해로 10살과 8살, 7살 세 아이를 둔 현규환(40) 씨가 말했다.

일에 치이다 보니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은 주말 정도였다. 그러다 세 아이 양육 부담에 아내에 이어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서 하나의 계기를 마련했다. 바로 ‘제주 100인의 아빠단’ 참가. 아빠들의 육아 고민을 나누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모임인데, 2019년부턴 제주를 비롯한 전국에서 시행 중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운영을 맡고 있다.

100인의 아빠단은 ‘아빠들’만의 모임이 아니다. 아이와 아빠가 ‘함께’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주어지는 교육, 건강, 일상, 관계 등 5개 분야 미션도 그런 의미다. 전국의 ‘멘토 아빠’들이 내 주는 미션은 아빠와 아이, 온 가족이 할 수 있는 놀이, 운동, 바깥체험 등으로 구성된다.

“(아빠단) 활동 초창기에 했던 미션이었어요. 어떤 도구도 필요 없이 몸으로 아이와 놀아주는 여섯 가지 놀이를 수행하는 거였죠. 아빠 산 오르기, 아빠 그네 타기처럼 말이에요. 지금도 잊힐 만하면 그걸 또 해 달라고 해요. 아이들에겐 아빠가 몸으로 놀아주는 게 제일 재밌나 보더라고요.” 규환 씨가 웃으며 말했다.

참가 첫해에는 아빠가 신청했지만 두 번째부턴 아이들의 바람도 컸다. 아이들이 먼저 아빠단 활동을 다시 안 하는지 물어 왔다. 그렇게 2020년부터 작년까지 모두 3회에 걸쳐 아빠단에 이름을 올렸다. 규환 씨는 “아이들과 훨씬 더 가까워졌다”면서 “아이들과 무료로 영화를 보는 것처럼 활동 내내 다양한 이벤트가 있어 도움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또 놀고 싶어요”… 아빠에게 다가오는 아이들=두 아이를 둔 강태윤(37) 씨는 지난해 처음으로 아빠단 활동에 참여했다. 보육원에서 일하다 보니 아이들을 보는 게 익숙하지만 ‘현실 육아’는 또 다른 일이었기 때문이다. 이전까진 “(자녀들과) 그냥 같이 앉아 대화나 조금 하는 정도였다”는 태윤 씨도 다양한 놀이를 하며 아이들과 더 가까워졌다고 했다.

“솔직히 매주 미션을 다 하진 못했어요. 그런데 그걸 하려니 자연스레 시간을 내게 되더라고요. 평소에 관심이 없거나 아이들과 어떻게 놀아줘야 할지 몰랐어도 더 다양한 놀이법을 찾아보게 되고요. ‘비행기 놀이’라고 하면 보통은 무릎 위에 아이를 올려 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양손으로 들쳐 안거나 이불로 아이를 감싸서 해 보기도 한 것처럼 말이에요.”

한 번 시작한 놀이는 또 다른 놀이 시간으로 이어졌다. 종이컵을 쌓고 무너뜨리는 놀이가 재밌었던 아이들이 또 하고 싶다며 아빠에게 다가왔다. 태윤 씨는 장난 섞인 말로 “피곤할 때 놀아달라고 하면 힘들 때가 있다는 게 단점”이라면서도 “아이들과 계속 놀이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 했다.

아이들과의 놀이를 통한 육아 참여는 아이들에게도 긍정적일 거라고 아빠들은 말한다. 부모가 서로 부족한 것을 보완하며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얘기다. 태윤 씨는 “성별에 요구되는 역할이 다르다는 것까진 아니지만 아이들에게 요구되는 엄마 아빠의 역할은 분명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남성에 비해 꼼꼼한 여성은 아빠들이 놓치는 걸 잡아줄 수 있고, 남성인 아빠들은 좀 더 활동적인 놀이를 함께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 100인의 아빠단’은 지난해야 처음으로 그 이름처럼 100명을 채웠다. 이전까진 그 수에 못 미치는 인원으로 구성됐다고 한다. 그만큼 아빠들의 관심이 늘어난 것을 보여준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지회 관계자는 “아이에 대해 몰랐던 점을 알게 됐다거나 엄마하고만 놀던 아이가 아빠와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됐다는 후기도 전해주고 있다”고 했다.

제주 100인의 아빠단은 올해도 새롭게 구성된다. 오는 4~5월 모집을 거쳐 6월부터 연말까지 활동을 이어간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가치 육아** 한라일보의 ‘가치 육아’는 같이 묻고 함께 고민하며 육아의 가치를 더하는 코너입니다. 부모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는 ‘공동육아’와 제주도육아종합지원센터 오명녀 센터장이 육아 멘토로 나서는 ‘이럴 땐’을 2주에 한 번씩 연재합니다. 모두와 함께 공유하고 싶은 육아 이야기나 전문가 조언이 필요한 고민이 있다면 한라일보 가치 육아 담당자 이메일(jieun@ihalla.com)로 보내주세요.

영화觀

타인의 심연

영화 ‘애프터썬’.

샬롯 웰스 감독의 데뷔작 ‘애프터썬’은 딸인 소피가 아빠인 캘럼과 20년 전 단 둘이 떠났던 튀르키에 여행을 추억하는 이야기다. 둘만의 기억이 담긴 오래된 캠코더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해 여름. 거친 입자의 화면 속에 남겨진 추억의 순간들은 윤슬처럼 반짝이다 파도처럼 휘몰아친다.

11살이었던 딸 소피와 31살이었던 아빠 캘럼. 부녀라기보다 남매처럼 보이는 둘은 휴양지에서의 시간을 한가롭게 보낸다. 부모의 이혼 후 아마도 매년 아빠와 단 둘의 시간을 허락받은 것처럼 보이는 소피와 그런 딸을 애지중지하는 청년 캘럼은 누구보다 잘 맞는 친구 같다. 매일 만나는 사이는 아니지만 어색함이 없고 서로의 행동이나 말을 금방 이해한다. 둘은 불편할 것이 전혀 없는 자연스러운 관계다. 특별히 해야 할 일도, 간절히 하고 싶은 일도 없이 흘러가는 휴양지의 시간들 속에서 소피와 캘럼은 서로의 다른 구석들을 조금씩 더 발견한다. 천진한 아이의 들썩임이 줄어든 소피의 성숙함과 소피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어딘가 우울한 모습을 숨길 수 없는 캘럼. 둘은 큰 소리로 싸우지도 않고 여행지를 이탈하지도 않지만 이 관계가 이전과는 같지 않음을, 지금 이 순간이 그대로 다시 돌아올 수 없음을 천천히 알게 된다. 같은 태양 아래, 넓은 바다 위에, 좁고 어두운 방의 한 침대 위에서 소피와 캘럼이 나눴던 시간들이 재생될 때 영화를 보던 관객들 또한 각자의 필름들을 꺼내게 된다. 영화의 파도가 끝나갈 때, 영화가 남긴 잔열을 연료 삼은 관객 각자의 거센 추억 여행이 시작된다. 어떤 관객들은 ‘애프터썬’을 보고 나서 한참 있다가 갑자기 감정이 격해졌다고 하는데 나 또한 그랬다. 엔딩 크레디트가 다 끝나고 뭔가 휘청거리는 마음으로 극장의 계단을 다 오른 뒤 바깥의 찬 공기가 얼굴에 닿는 순간 울컥하고 덜컹했다. 누군가가 그리워서도, 과거의 내가 미워서도 지금의 우리가 안쓰러워서도 아니었다. 그저 영원히 알 수 없겠지만 여전히 소중할 시간들을 지금 기억할 수 있어서였다.

‘애프터썬’은 부모와 자식으로 만난 타인들이 서로의 심연에 다가서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영화는 극적인 기승전결 없이 오래된 앨범을 열어보는 것처럼 진행된다. 나의 작은 모습, 아빠의 젊은 순간들을 보며 흐뭇하다가 온전히 채워지지 않은 사진의 자리를 궁금해하다가 결국은 찍지 않은 사진의 순간들을 지금의 마음으로 다시 인화하는 영화이기도 하다.

타인의 심연을 짐작하는 일은 눈을 부릅뜨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내가 다 알지 못했고 알 수 없었던 그리고 다 알아서는 안되었던 시간들을 눈을 감고 찬찬히 끄덕이는 일. 타인의 오랜 상처와 고통과 번뇌를 긍정하는 일. 그 고통을 이해한다고 쉽게 말하지 않는 일. 다만 헐벗은 채 우리의 자리에 잠든 당신에게 이불을 덮어 주는 일. 그것이 타인의 심연에 다시 생을 감각할 우리만의 밀서를 보내는 일일 것이다.

진 명 현
독립영화 스튜디오
무브먼트 대표(전문가)

수상 축 CONGRATULATIONS 취임

행정안전부장관표창

김 용 범
(용담1동 적십자봉사회 초대회장)

제주시 외도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김 성 훈
(본회 감사)

수상 및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김해김씨 좌정승공파(후찬)계 관희문중회
회 장 **김 인 수** 외 **종친 일동**

선 축 CONGRATULATIONS 정

대한검도회 우수검도관

안 용 남
(외도검도관 관장)

대한검도회 우수검도관으로 **선정**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외도검도관 관원 일동

취 축 CONGRATULATIONS 임

서귀포소방서 직할여성의용소방대장

고 갑 선

서귀포소방서 직할여성의용소방대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서홍동 15기 주민자치위원회